



소개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터너 시리즈'

베니스의 아름다움에 경의를 표하는
네 가지 수공 에나멜 타임피스

주요 정보:

- **베니스를 향한 오마주:** 서양 미술사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풍경 화가로 손꼽히는 J.M.W. 터너(Turner)가 포착한 베니스의 아름다움과 영롱한 빛
- **메티에 라르[™]의 정수:** 미니어처 페인팅, 에나멜링, 파요나쥬, 핸드 기요세 등 장인 기술의 조화
- **정교한 에나멜링:** 깊이감과 원근감, 맑은 빛, 그리고 구름이 떠 있는 듯한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 14 겹의 에나멜 층을 입히는 섬세한 공정
- **특별한 리미티드 생산:** 네 가지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타임피스를 각각 단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

라 세레니시마(La Serenissima)라 불리는 베니스는 특유의 경이로운 빛과 아름다움으로 잘 알려진 도시로, 수 세기 동안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선사해 왔습니다. J.M.W. 터너 역시 베니스에서 무한한 영감의 원천을 발견했습니다. 베니스를 눈부신 빛으로 재해석한 그의 작품은 도시 특유의 분위기를 섬세하게 포착했을 뿐만 아니라, 서양 미술사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다가오는 9 월, 베니스에서 열리는 호모 파베르 비엔날레(Homo Faber Biennial)에 참여하는 예거 르쿨트르는 네 가지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타임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을 새롭게 선보이며 개최 도시에 경의를 표합니다. 각 시계의 케이스백에는 베니스를 담아낸 J.M.W. 터너의 회화 작품을 미니어처 페인팅으로 재현하여, 예술적 표현을 위한 캔버스로서 리베르소의 역할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예술과 문화를 향한 비전의 표현



유럽에서 시작해 현재 전 세계로 확장된 호모 파베르는 다양한 공예 분야의 탁월한 장인 정신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이는 워치메이킹의 근간을 이루는 고도의 전문 기술뿐만 아니라 파인 워치메이킹과 관련된 예술 공예를 계승하고 지원해 온 예거 르쿨트르의 헌신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예술과 문화를 향한 예거 르쿨트르의 비전을 보여주는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터너 시리즈’는 이러한 공통된 가치를 기리는 동시에,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가 보유한 기술을 선보입니다.

현대 미술의 선구자, 터너: 1775년 런던에서 태어난 조셉 말로드 윌리엄 터너(Joseph Mallord William Turner)는 서양 미술사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화가로 평가받습니다. 풍경 화가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작품은 산업화, 사회적 변화, 정치적 및 경제적 격변 등, 그가 살아간 시대를 뒤흔든 세계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여준 그의 초기 작품들은 당시 유행하던 사실주의 화풍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존의 관습을 탈피하고, 거침없는 붓터치와 때로는 엄지손가락이나 팔레트 나이프를 활용해 역동적인 구도를 연출하는 등 대담한 표현으로 자신만의 화풍을 빠르게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색채와 빛을 활용해 대상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끌어냈던 터너는 풍경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수십 년 후에 등장할 예술사조를 예견했습니다. 현대 미술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그는 19세기 후반 인상주의와 20세기 추상표현주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예술적 유산은 1851년 그가 작고한 이후로도 수많은 후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베니스, 터너를 사로잡은 매혹의 도시: 터너는 베니스라는 도시 자체에 매료되었으며, 그의 상상력은 셰익스피어와 바이런 경의 문학 작품을 통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1819년과 1833년, 1840년 세 차례에 걸쳐 베니스를 방문했던 그는 첫 방문 당시 44세로 성숙한 예술가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세 번의 여정은 모두 늦여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열은 물안개가 운하를 감싸고, 은은한 빛이 라군 위 건물들을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춥니다. 평생 동안 터너가 베니스를 주제로 선보인 회화 작품은 25점에 불과하지만, 그의 창작 활동은 놀라울 정도로 왕성했습니다. 세 차례의 여정을 모두 합쳐도 채 4주가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그는 150여 점의 수채화와 무려 900점에 달하는 드로잉을 남겼습니다. 베니스를 담은 유화 작품들은 훗날 런던 스튜디오로 돌아가 완성했습니다.

메티에 라르™를 기념하는 정교한 장인 정신



에나멜로 담아낸 터너의 빛: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타임피스에는 케이스백을 장식하는 미니어처 에나멜 페인팅과 파요네 에나멜링 기술, 그리고 다이얼을 장식하는 기요세와 에나멜 공예 기법을 하나로 담아냈습니다. 리베르소의 회전형 케이스는 예술적 장식을 구현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비어 있는 메탈 케이스백을 캔버스 삼아 에나멜 장인들이 명화를 정교하게 재현한 미니어처 작품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터너의 회화 작품에 담긴 영롱한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표현하기 위해, 각각의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타임피스에는 약 80 시간의 작업이 소요됩니다.

터너의 원작은 작품마다 크기와 비율이 다르므로, 리베르소 케이스의 세로형 비율에 맞추면서도 원작의 구도와 본질을 포착할 수 있도록 각 작품의 화면을 크롭했습니다. 각 시계의 제작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던 과제는 최대 68 x 91cm 에 달하는 원작을 우표 정도에 지나지 않는 2cm² 면적으로 축소하면서도 디테일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터너의 작품 특유의 원근감을 재현하고, 대기 속 빛의 미묘한 질감과 수면 위로 반짝이는 듯한 효과를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이 만들어 내는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 에나멜 장인은 여러 겹의 에나멜을 층층이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에나멜 장인은 가장 먼저 오리지널 미니어처 작업으로 구름을 그린 뒤, 두 겹의 반투명 에나멜을 입히고 소성합니다. 그런 다음 반투명 레이어 위에 다시 구름을 그리고, 전체 표면에 두 겹의 반투명 에나멜을 추가로 입힙니다. 더욱 투명하게 반짝이는 빛을 구현하기 위해, 장인은 물결을 묘사하는 부분에 파요나쥬 기술을 사용하여, 베이스 에나멜 위에 은박 시트를 붙인 후 반투명 컬러 에나멜로 그림을 그립니다.

원하는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 각 작품에는 베이스 레이어 3 겹, 페인팅 레이어 4 겹, 그리고 반투명 '풍당' 레이어 7 겹을 포함해서 총 14 겹의 에나멜을 입힙니다. 각 레이어는 800°C 의 고온에서 개별적으로 구워내는 소성 과정을 거칩니다. 각 작품 속 눈에 띄지 않게 금박 파이용으로 새긴 비밀스러운 시그니처는 해당 작품을 완성한 에나멜 장인의 존재를 조용히 증명합니다.

기요세와 에나멜의 조화: 컬러풀한 다이얼은 케이스백의 미니어처 페인팅과 조화를 이루는 패턴과 컬러를 핸드 기요세로 정교하게 새긴 뒤, 반투명 그랑 퓨 에나멜을 입혀 완성했습니다.

손목의 움직임에 따라 빛을 반사하는 핸드 기요세 패턴은 수동으로 작동하는 로즈 엔진 선반을 사용하여 새겨지는데, 이 패턴을 완성하기 위해 최대 1,080 회의 정밀한 인그레이빙을 거칩니다. 기요세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이얼마다 8~9 시간에 걸친 에나멜링 공정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 5 겹의 에나멜을 입히고 800°C 에서 6~7 회에 걸쳐 구워냅니다. 가장 까다로운 마지막 단계는 매끈한 에나멜 표면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미세한 구멍을 뚫고 각면 처리된 인덱스를 완벽하게 세팅한 뒤, 슈망 드 페르 미닛 트랙을 정교하게 전사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델에 적용되는 각면 애플리케이션 아워 마커와 도핀 핸즈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장식을 돋보이게 합니다.

베니스의 빛: 미니어처로 재현된 네 가지 작품

터너가 베니스에서 창작한 작품들은 풍부한 디테일을 담고 있으면서도, 도시의 모습 그 자체를 묘사하기보다는 빛과 물, 하늘과 같은 자연이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장면을 탐구했습니다. 매혹적이고 분위기 있는 그의 베니스 회화 작품은 도시의 웅장함은 물론, 연약함과 사라져 가는 영광까지 담아내며, 아름다운 풍경 이면의 애잔한 분위기를 표현합니다. 터너는 빛과 공기, 시간이 만들어내는 찰나의 순간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담아내며, 관람객이 단순히 작품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감각으로 경험하도록 이끍니다.

베니스, 도가나와 산 조르조 마조레(Venice, the Dogana and San Giorgio

Maggiore): 호모 파베르 비엔날레의 무대로 선정된 산 조르조 마조레 섬은 라군을 사이에 두고 산마르코 광장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1834 년 완성된 이 작품은 빛, 색채, 그리고 반사의 미학에 집중합니다. 섬의 이름을 딴 성당의 눈부시게 하얀 외관이 중심을 이루고, 줄지어 늘어선 건물들은 옅은 안개 속으로 아득히 사라져 갑니다. 에나멜 아래에 자리 잡은 실버 파이용은 라군의 풍부한 질감을 강조하고, 물결에 깃든 눈부신 광채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수면 위 반사 효과를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상인들의 범선, 식료품을 실은 작은 배들, 운하를 가로질러 승객을 실어 나르는 곤돌라와 같은 베니스의 활기찬 일상은 일렁임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차분한 라군의 수면과 대조를 이룹니다. 수면의 그린 톤을 반영한 다이얼에는 새로운 *솔레이 크루아제* 기요세 패턴이 장식되어 풍성한 빛으로 반짝이는 에나멜 레이어 아래에서 은은한 질감을 드러냅니다. 기요세는 180 개의 섬세한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라인은 로즈 엔진 선반을 통해 연속 6 회의 가공 과정을 거쳐 총 1,080 회에 달하는 정교한 공정 끝에 완성됩니다.



베니스,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의 현관에서(Venice, from the Porch of Madonna della Salute): 물에 비친 건물의 모습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흐릿한 빛은 풍경에 깊이감을 더하고, 빛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건축물의 섬세한 디테일을 돋보이게 합니다. 에나멜 아래에 자리 잡은 실버 파이용은 수면의 질감을 강조하며, 터너가 바라본 베니스의 섬세한 반영과 화려한 광채를 생생하게 담아냅니다. 1835 년 완성된 이 작품은

유화에 수채화 기법을 접목하며 발전해 나간 터너의 화풍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는 당시 전통주의자들에게서 비난받았으나, 이후 그의 화풍은 풍경화 장르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터너가 베니스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린 연필 스케치를 바탕으로 완성된 이 작품의 구도는 1833 년 두 번째 방문 이후 한층 깊어진 탐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결의 그린 톤은 그랑 퓨 에나멜 다이얼에도 이어집니다. 손목을 돌릴 때마다 쌀알 모양의 기요세 무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명암을 만들어내면서, 터너가 묘사한 베니스의 영롱하고 화사한 분위기를 연상시킵니다. 수직 발리콘 기요세는 70 개의 섬세한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라인은 로즈 엔진 선반을 이용해 연속 6 회의 가공을 거쳐 총 420 회의 정교한 공정 끝에 완성됩니다.



베니스, 탄식의 다리, 두칼레 궁전과 세관(Bridge of Sighs, Ducal Palace & Custom House, Venice): 18 세기 베니스의 위대한 화가 조반니 안토니오 카날레토에게 찬사를 보내는 이 작품은, 터너가 베니스를 처음 방문한 지 14 년 만에 완성한 최초의 베니스 유화입니다. 크롭 이미지로는 보이지 않지만, 원화에서는 카날레토가 화면 왼쪽에서 이젤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늦여름의 안개 낀 공기 속으로 빛이 번지듯 퍼져 나가고, 건물들은 마치 라군과 하늘 사이에 떠 있는 듯 보이며, 두칼레 궁전을 물들인

장밋빛 산호색은 그린 컬러의 수면, 선명한 세룰리안 블루의 하늘과 강렬한 대비를 이룹니다. 라군 위의 은은한 반짝임은 에나멜 아래에 자리 잡은 섬세한 실버 파이용으로 더욱 돋보이며, 이는 물결에 생동감 넘치는 질감을 더하고, 빛을 받을 때마다 환상적인 광채를 자아냅니다. 청명한 푸른 하늘빛은 다이얼 위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로즈 엔진 선반을 통해 연속 6 회의 가공 과정을 거쳐 섬세하게 새겨진 46 개의 라인으로 구성된 바스켓 위빙 기요세 장식 위에 반투명한 블루 그랑 퓨 에나멜을 입혀 영롱하게 일렁이는 빛을 발산합니다.



베니스, 탄식의 다리(Venice, the Bridge of Sighs): 1840 년 완성된 이 베니스 풍경화에서 터너는 어두운 전경과 건물에 반사된 눈부신 빛을 대조시켜 도시의 아름다움과 쇠퇴를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에나멜 아래에 자리 잡은 실버 파이용이 작품의 분위기를 한층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물결에 독특한 질감을 더하고, 빛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반사 효과를 구현합니다. 그는 인물들을 통해 당대의 사회적 및 경제적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으며, 작품을 전시할 당시에는 베니스 공화국의 몰락에서 영감받은 바이런의 시를 각색하여 '나는 다리 위에 섰노라, 한쪽에는 궁전이, 다른 쪽에는 감옥이 있도다.(I stood upon a bridge, a palace and a prison on each hand.)'라는 문구를 더했습니다. 푸른 하늘에 은은하게 감도는 라벤더 컬러는 그랑 퓨 에나멜 다이얼로 이어지고, 물결 모양의 핸드 기요세 패턴은 베니스 운하 위로 일렁이는 빛을 연상시킵니다. 넓고 깊은 수평 물결무늬 기요세는 41 개의 섬세한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라인은 9 회의 연속 가공 과정을 거쳐 총 369 회에 달하는 정교한 공정을 통해 완성됩니다.



시대를 초월한 무브먼트, 칼리버 822: 시간 표시 기능만을 갖춘 다른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델과 마찬가지로,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터너 시리즈' 역시 예거 르쿨트르가 오직 리베르소를 위해 개발한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822 를 탑재했습니다. 20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리베르소 컬렉션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한 이 칼리버는 직사각형 케이스에 맞춰 설계됐고, 3mm 가 채 되지 않는 두께로 슬림한 실루엣을 유지하면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42 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시간당 21,600 회(3Hz) 진동수를 갖춘 칼리버 822 는 안정적인 정밀도를 제공하며, 파인 워치메이킹 기술과 기요세, 에나멜링, 파요나쥬, 미니어처 페인팅 등 정교한 장식 공예 기법을 조화롭게 아우릅니다.

각 모델이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터너 시리즈'는 호모 파베르 비엔날레가 열리는 베니스에 바치는 헌사입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터너 시리즈' - 베니스, 도가나와 산 조르지오 마조레

원화: 1834 년, 캔버스에 유화, 91.5 x 122cm(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워싱턴 DC)

케이스: 18K 화이트 골드(750/1000)



크기: 45.6 x 27.4mm, 두께 8.51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앞면 다이얼: '솔레이 크루아제' 핸드 기요세, 그랑 퓨 에나멜

케이스백: 미니어처 페인팅 그랑 퓨 에나멜

방수: 3bar

스트랩: 블랙 엘리게이터 가죽

레퍼런스: Q39334W1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터너 시리즈' – 베니스,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의 현관에서

원화: 1835 년, 캔버스에 유화, 91.4 x 122.2cm(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

케이스: 18K 화이트 골드(750/1000)

크기: 45.6 x 27.4mm, 두께 8.51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앞면 다이얼: 라이스 그레이인 핸드 기요세 패턴, 그랑 퓨 에나멜

케이스백: 미니어처 페인팅 그랑 퓨 에나멜

방수: 3bar

스트랩: 블랙 엘리게이터 가죽

레퍼런스: Q39334W2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터너 시리즈' – 탄식의 다리, 두칼레 궁전과 세관

원화: 1833 년, 마호가니에 유화, 51.1 x 81.6cm(테이트 브리튼 소장)

케이스: 18K 화이트 골드(750/1000)

크기: 45.6 x 27.4mm, 두께 8.51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앞면 다이얼: 발리콘 핸드 기요세, 그랑 퓨 에나멜



케이스백: 미니어처 페인팅 그랑 퓨 에나멜

방수: 3bar

스트랩: 블랙 엘리게이터 가죽

레퍼런스: Q39334W3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터너 시리즈' – 베니스, 탄식의 다리

원화: 1840 년, 캔버스에 유화, 68.6 x 91.4cm(테이트 브리튼 소장)

케이스: 18K 화이트 골드(750/1000)

크기: 45.6 x 27.4mm, 두께 8.51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앞면 다이얼: 물결 모양 핸드 기요세 패턴, 그랑 퓨 에나멜

케이스백: 미니어처 페인팅 그랑 퓨 에나멜

방수: 3bar

스트랩: 블랙 엘리게이터 가죽

레퍼런스: Q39334W4

리베르소 소개

1931 년, 예거 르쿨트르는 20 세기의 클래식 디자인 타임피스이자 진정한 위치메이킹의 아이콘인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위치는 세련된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형 케이스 디자인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90 년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79 개의 다양한 칼리버를 탑재하고 35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메탈 소재의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젤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리베르소가 출시된 지 90 여 년이 지난 오늘날, 리베르소는 탄생에 영감을 준 모던함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모 파베르 비엔날레 소개

호모 파베르 비엔날레는 미켈란젤로 재단이 기획하여 베니스에서 개최되는, 현대 공예 기술을 위한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호모 파베르의 대표 프로젝트는 폰다치오네 조르지오 치니의 웅장한 공간에서 수백 명의 장인과 신진



작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입니다. 산 조르시오 마조레 섬을 넘어 펼쳐지는 시타의 호모 파베르를 통해 베니스 도시 곳곳에서 살아 숨 쉬는 장인 정신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 아틀리에™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82 곳의 아틀리에, 108 가지의 공예, 그리고 69 가지 시그니처 기법을 포함한 총 235 가지의 노하우가 한데 모인 매뉴팩처 아틀리에™에서는 독창적인 기술과 아름다운 미학, 그리고 절제된 세련미가 한데 어우러진 탁월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이 탄생합니다.

jaeger-lecoultre.com